

## 편하게 눈 못감는 설리 유가족 유산 분쟁 '쌘쓸'



설리

지난해 10월14일 세상을 떠난 가수 설리의 부친과 오빠가 고인의 유산 사용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쌘쓸함과 안타까움을 안기고 있다.

설리의 둘째오빠인 최 모 씨가 동생의 유산을 "사회 환원"하려는 부친의 의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 씨는 또 19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날 SNS에 달린 댓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미 (변호사를)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팬들의 우려가 나온다.

설리 유족간 갈등은 오빠 최 씨가 18일 SNS에 부친이 지인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올린 뒤 알려졌다. 최 씨는 "어떻게 친부라는 사람이 동생(설리)의 슬픔도 아닌 유산으로 인한 문제를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나"라고 폭로했다. 이어 "동생 묘에는 다녀오지도 않은 분"이라며 "말과 행동이 다르다. 남남이면 제발 남처럼 살아 달라"고 썼다. 19일 부친이 설리의 묘소를 참배한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를 불신하며 강하게 반발한 사실도 공개했다.

최 씨가 앞서 공개한 부친의 문자메시지는 "나에게는 천국으로 먼저 간 딸내미가 이 땅에 남긴 유산이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부친은 "유산 상속 문제로 남남이 된 아이들 엄마와 전화로 다툼이 있었다"며 "나는 딸내미가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천국에서 기뻐할 딸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에 환원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드러나지 않은 사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3남1녀의 셋째인 설리는 생전 가족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오빠 최 씨는 2018년 11월15일 설리가 진행하던 온라인 방송 '진리상점'에 출연해 "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해리 기자 gof1024@donga.com

## '코믹+액션' 권상우의 히트맨 명절 연휴 극장가 히트 예고



히트맨

배우 권상우가 설 연휴 극장가를 노린다. 같은 시기 개봉작에 비해 비교적 주목도가 낮았지만 최근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공개하면서 관객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권상우가 영화 '히트맨'(제작 베리굿스튜디오)을 22일 내놓으면서 설 연휴 또 다른 기대작인 '남산의 부장들', '미스터 주: 사라진 VIP'와 경쟁한다. 코미디와 액션을 버무려 다양한 세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명절영화의 미덕을 내세운다. 기발한 스토리, 웹툰과 힙합을 뒤섞은 감각적인 스타일로도 관객을 공략한다.

'히트맨'은 웹툰 작가가 되려고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전설의 암살원의 이야기다. 권상우는 어릴 때 국정원의 비밀프로젝트에 선발돼 '인간병기'로 길러진 인물. 목숨을 건 작전에 투입되는 긴박한 순간에도 스케치북에 자화상을 그려 '내가 죽으면 영정사진으로 써 달라'고 내미는 그는 꿈을 이루려 사고사로 가자해 진짜 웹툰 작가가 된다. 하지만 일상은 지칠해서 연재작마다 혹평을 받고 아내와 딸의 구박 속에 산다. 작품을 내놓는 족족 실패하다 솔김에 그리지 말아야 할 과거를 발표해 대성공하지만, 이로 인해 국정원과 테러 조직의 터를 타게 되는 과정을 실제 웹툰을 삽입해 구성한 시도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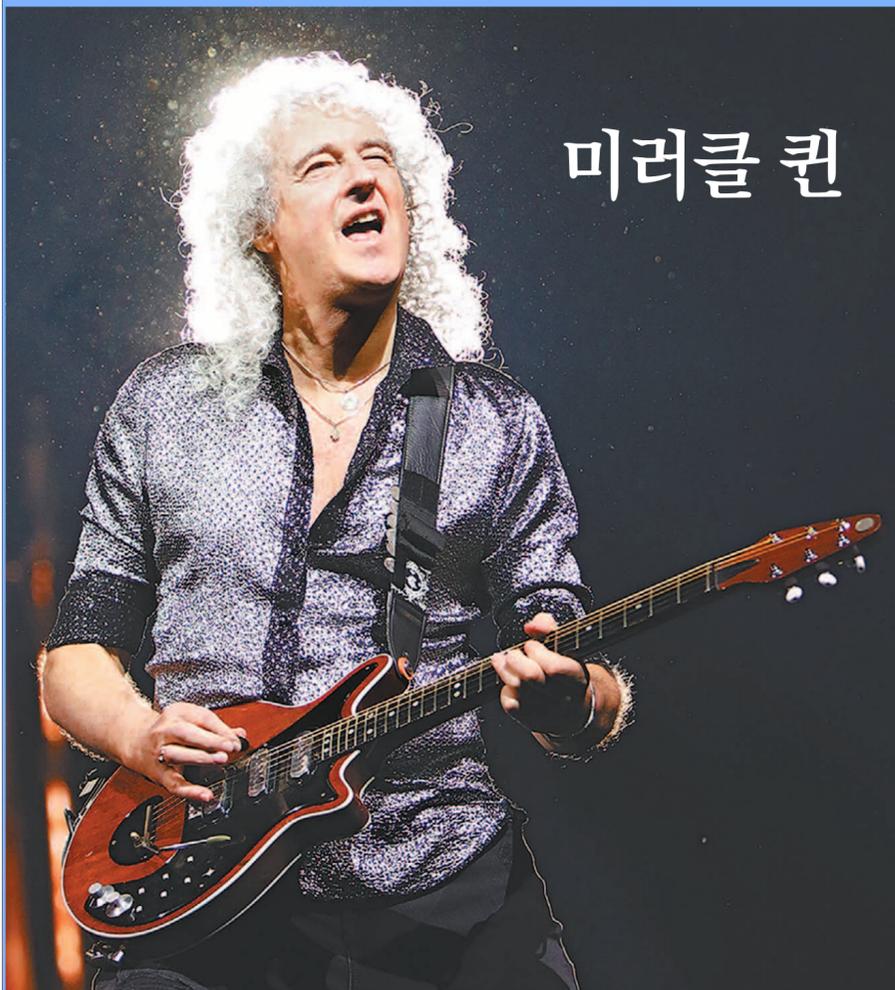
그만큼 '짤내' 나는 웃음을 자아낸다. 권상우는 주특기인 코미디는 물론 탁월한 액션 실력도 유감없이 발휘한다. 15년간 과거를 지우고 살지만 자신의 웹툰 탓에 가족까지 납치되자 정체를 드러내면서 액션 히어로로 거듭난다.

특히 '화장실 격투'는 액션에 관한 한 권상우의 장점을 따라잡을 배우가 없음을 역설해준다. 최근작인 코믹 탐정물 '탐정' 시리즈와도 또 다른 매력이다.

권상우는 "코미디 영화이지만 사실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며 "돈 못 버는 남편이자 아빠, 그를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지닌 따뜻함이 있다"고 밝혔다. 연출자 최원섭 감독은 "코미디와 화려한 액션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배우는 권상우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권상우를 염두에 두면서 시나리오를 썼다"고 말했다.

권상우와 비밀프로젝트의 '악마' 교관인 정준호가 재회해 벌이는 티격태격 해프닝도 빼놓을 수 없는 '웃음 밭'이다. '두사부일체'부터 '가문의 영광' 시리즈까지 코미디 영화로 전성기를 누린 정준호의 귀환도 반갑다. 권상우는 "정준호 선배가 출연을 결정했을 때 위안과 함께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다"고 돌아섰다. 이해리 기자

## 49년만에 첫 단독 내한공연...이틀간 4만5000여 관객 '떼창'



## 미러클 퀸

그들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18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5 퀸' 무대를 펼치며 화려한 연주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트레이드 마크'인 긴 머리카락이 조명을 비추며 카리스마를 더한다. 사진제공 | 현대카드

故 머큐리 대신 무대선 램버트 보컬 파워  
70대에 들어선 메이·테일러 노익장 과시  
'위 월 록 유' 나오자 전관객 발 구름 재현

은통 젊음의 에너지였다. 형형색색의 강렬한 무대의 힘은 관객을 가득 채운 2만3000여 관객과 어우러지며 젊은 기운을 물씬 풍겨냈다.

밴드 퀸이 18일과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5 퀸' 무대에 나섰다. 프레디 머큐리(보컬), 브라이언 메이(기타), 존 디콘(베이스·1997년 은퇴), 로저 테일러(드럼)가 1971년 퀸의 이름으로 의기투합한 지 49년 만에 펼친 첫 단독 내한공연이다.

### ●프레디 머큐리도 함께...떼창의 열기

18일 퀸은 2시간여 동안 30곡을 소화한 이날 무대의 열기는 첫 글로벌 히트곡 '킬러 퀸'을 거쳐 일곱번째 노래 '돈 스톱 미 나우'로 흐르며 더해갔다. T자형 무대 앞을 가득 채운 스탠딩 구역과 지정석 관객들은 형광등을 흔들며 '떼창'으로 입을 모았다. 형광등 물결은 '섬바디 투 러브'로 일렁였다. 1991년 세상을 떠난 프레디 머큐리의 자리를 2012년부터 대신해온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애덤 램버트가 "함께 부르자, 함께 프레디와 퀸을 기념하자"고 말한 뒤였다.

애덤 램버트는 3음역대를 넘나들며 허공을 찢는 듯한 탁월한 보컬 파워를 과시했다. 프레디 머큐리의 강렬한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관능적 매력을 뽐내었다. 브라이언 메이는 보조 연주자도 없이 홀로 기타를 메고 무대를 누비며 화려한 연주로 관객의 귀를 자극했다. 로저 테일러도 드럼 스틱에 힘을 실어 장내를 뒤흔들며 놓았다.

또 한 사람의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였다. 여전히 '살아 있는 전설'의 일원임을 확인시키며 생전 공연 영상으로 세 차례 등장했다. 브라이언 메이가 어쿠스틱 기타로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는 사이 모습을 드러내자 관객은 열광했다. 무

대 위 두 사람은 실제 함께하는 듯, 서로에게 손을 내뻗으며 인사했다.

감격의 표정을 감추지 못한 브라이언 메이는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서울!"을 연발했다. '떼창'으로 힘을 더해준 관객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웠고,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렸다.

갓은 색상의 화려한 레이저 조명과 왕관 모양의 거대한 무대장치는 다채롭게 변형되며 무대를 더욱 웅장하고 신비롭게 채색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흐르면서 1975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편집과 영상이었던 뮤직비디오가 대형 멀티비전에 비추며 열기는 절정에 달했다.

5분여 동안 '양코르'를 외치는 관객 앞에 프레디 머큐리가 다시 나타났다. 1986년 영국 런던 웹블리스타디움 공연에서처럼 '에~요'로 관객의 화답을 이끌었다. 관객은 '위 월 록 유'의 발 구름 소리로 함께 했고, 퀸은 '위 아 더 챔피언스'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브라이언 메이는 태극기가 그려진 흰 티셔츠를 입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관객을 위로했다.

### ●무대는 계속 된다...The Show Must Go On

객석을 채운 대다수는 20~30대 젊은 층이었다. 프레디 머큐리의 생전 화려한 의상을 '코스프레'한 차림의 일부 관객도 눈길을 모았다. 2018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힘이기도 했다. 공연주최사 현대카드에 따르면 이들은 이틀간 공연장을 찾은 4만5000여 관객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영화를 통해 퀸과 그들의 음악을 알게 된 뒤 이를 모두 공연을 관람한 박현진(23·서울 도봉구) 씨는 "램버트와 관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떼창'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공연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미 70대에 들어선 브라이언 메이(73)와 로저 테일러(71). 이들은 애덤 램버트와 함께 일본, 호주 등으로 날아가 투어를 이어간다. 여전히 뛰어난 예술가로서 이들에게 무대는 젊음을 나누고 젊음의 에너지를 확인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고척 |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고 프레디 머큐리의 자리를 대신한 보컬 애덤 램버트(왼쪽 사진 왼쪽)와 드러머 로저 테일러. 이들은 웅장한 무대 위를 누비며 1971년 결성 이후 49년 만의 첫 단독 내한공연을 꾸렸다. 사진제공 | 현대카드



이들은 웅장한 무대 위를 누비며 1971년 결성 이후 49년 만의 첫 단독 내한공연을 꾸렸다. 사진제공 | 현대카드

## 연예

11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 연예뉴스 HOT 4

#### '돌싱남' 김구라, 여자친구 교제 고백



김구라

방송인 김구라(50)가 새로운 사랑을 쌓아가고 있다. 김구라가 18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여자친구가 있음을 고백했다. 그는

박명수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혼자 살 수 없잖아"라고 답했다. 이어 "이 나이에 선블리 뿔 얘기하기는 그렇다. 뿔 결심이 섰을 때 얘기하겠다"면서 "결혼식은 안 할 거다. 만약 하더라도 극비로, 식구들끼리만 하려고 한다"며 속스러웠다. 김구라는 2015년 전 부인과 이혼했다.

#### '사랑의 불시착' 시청률 11.5% 기록

손예진·현빈 주연의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18일 전체 채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 따르면 '사랑의 불시착'은 18일 9회 방송분이 11.5%의 시청률을 기록, 동시간대 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TV 채널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분당상황에서 두 남녀의 애틋한 이별이 눈물샘을 자극한 덕분이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시청자의 궁금증이 높아지면서 시청률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남산의 부장들' 예매율 34.4%로 1위

22일 개봉하는 이병헌 주연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19일 예매율 1위에 올랐다. 설 연휴를 앞두고 흥행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남산의 부장들'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34.4%의 예매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병헌과 이성민, 박도원, 이희준 등이 출연하는 '남산의 부장들'은 15일 첫 시사회 이후 평단과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영화는 동명의 노픽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1970년대 말 중앙정보부장의 대통령 암살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 봉준호 감독 '세계 엔터 리더 500인'



봉준호 감독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 위원장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배리어터가 선정한 '세계 엔터테인먼트 리더 500인'에 선정됐다.

봉 감독은 "간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보여준 성취", 오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사태로 진통을 겪은 한국 영화계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한·아세안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한 점"이 배경이 됐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정태성 전 CJ ENM 대표도 꼽혔다. 한편 '기생충'의 양진모 편집감독은 미국영화편집자협회 장편영화·드라마 부문 편집상을 받았다.